

# 화순 이서면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협의회 개최

### 학자금 지원계획 수립...초·중·고교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비 1억 6000여 만원 편성...1인당 지원 금액 3배 늘어나

화순 이서면(면장 허선심)은 지난 31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동복댐주변지역 협의회 위원(이서면 마을 이장) 15명이 모두 참석하여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생활 기반 조성사업, 육영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육영을 목적으로 시행

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2023년도 지원 계획 심의·결정이었다.

해당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여 원 증액된 1억 60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기에, 협의회는 내실 있고 형평성 있는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을 숙고한 끝에 사업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서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자녀가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이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3배가량 대폭 늘어났다. 우선 초등학교생 90만 원, 중학생 150만 원, 고등학생 200만 원, 대학생 290만 원을 지원하되, 2023년 지원 신청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신청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로 신청 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서면 실거주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허선심 이서면장은 "고물가 시기에 동복댐 주변지역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군, 참전·보훈수당 인상 지원

### 보훈명예수당 월 5만 → 10만·참전명예수당 월 8만 → 10만

곡성군이 보훈 수당을 2023년부터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수당은 지역 내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년도까지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 원, 참전명예수당 8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각각 5만 원, 2만 원이 증액된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곡성군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

례'를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도 꾸준히 진행돼 2023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

다"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2020년 6월에 보훈회관을 건립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훈회관 내에는 '녹색쌈지숲'을 조성해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 보훈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회원 합동 참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 담양군,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군비 추가지원으로 하반기 지원 연령·금액 확대 예정

담양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

업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군비를 추가 지원해 지원연령을 기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4월 중 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구례군, 공직자 친절 교육 실시

### 신뢰감 줄 수 있는 민원응대 스킬 교육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구례군은 지난 2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 소속 실과소원·읍면장 등 부서장급 공직자 전원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직원들이 참석한 현장 교육과 함께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전 공직자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한국글로벌코칭교육원 장은영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나로부터 비롯되는 친절'을 주제로 민원응대 시 공직자의 마음가짐,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화법, 유형별 민원응대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친절하지 않고 내는 성과는 군민들에게 의미가 없는 성과다"라며 "공직자는 청렴함, 공정함과 더불어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나주시 보건소, 시민 누구나 '불소용액' 무료 배부

나주시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소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나주시는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불소양치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건소는 만 3세 이상부터 전 세대에 불화 나트륨 0.05%농도 가글 용액을 무료로 배부하고 하루 1회 꾸준한 양치를 권장하고 있다.

불소 가글 용액은 시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동 구강교육실(2층)을 매주 화, 목요일에 유선 예약 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구강 내 총치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으로부터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불소 막을 형성해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



하며 이가 시린 증상을 완화해준다.

사용 방법은 먼저 칫솔로 입안 구석구석을 양치한 후 10ml정도 불소 용액을 입에 머금고 가글 후 뱉으면 된다.

가글 후 30분에서 1시간은 불소 성분의 치아 표면 흡수를 위해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나주=송준표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